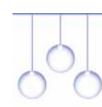
장 얻고



한 박자 쉬어가는 곳

대인시장의 다양한 정보를 얻고 쉬어갈 수 있는 시장내 '웰 컴센터 대인스토리'.



문화가 흐르는 공간

10 웰컴센터 '대인스토리'



독특한 외관의 웰컴센터 대인스토리.

〈대인스토리 제공〉

대인시장 벽화·먹거리 정보 제공 갤러리·희망나무·수유실 갖추고 사진 찍고 메일 전송 포토존 인기 월~토 오전 10시~오후 6시 개방

지난 7월 열린 대인야시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 였다. 사람 구경, 물건 구경, 공연 구경에 지쳐 잠시 한 적한 주차장 쪽으로 나오니 처음 본 공간이 눈에 들어 왔다. 광주대인문화관광형시장 사업단이 지난 4월 문 을 연 웰컴센터 '대인스토리'다.

그렇치 않아도 대인시장을 찾을 때마다 마땅히 정보 를 얻거나 쉴 공간이 없는 점이 아쉬웠는데 딱 안성맞 춤인 공간이었다.

취채 차 다시 찾은 날은 태풍이 몰아치던 지난 주말이 었다. 빗속을 뚫고 시장 구경을 나온 이들이 의외로 많 이 눈에 띄었다. 서울에서 온 이들도 있고 가족 단위 관 람객 등이 수시로 드나들며 정보를 얻고 잠시 쉬어갔다.

붉은 벽돌과 흰 담벼락, 붉은 색으로 포인트를 둔 창 문이 인상적인 건물 문을 열고 들어섰다. 아기자기 꾸 며진 인테리어가 눈길을 끈다. 나무 기둥을 그대로 활 용한 책상이며 각기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진 다양한 책 장이 인상적이다. 비치된 책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한 번쯤 꺼내 읽고 싶은 책들이 많다. 천장에 매달린 대인 시장 우산, 상인들에게 책을 빌려주는 찾아가는 작은 책수레 등 볼 것이 눈에 띈다.

벽면은 작은 갤러리로 활용중이다. 현재는 상인들이 직접 찍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다. 먹음직스런 국밥을 담아내는 국밥집 사장님, 말린 오징어를 한아름 품에 안고 있는 시장 아주머니의 모습이 보인다. 조만간 지 역 작가들의 작품도 전시할 계획이다. 바로 옆에는 아 이들과 작가, 상인들이 함께 만든 엽서가 전시돼 있다.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.

가파른 나무 계단이 눈에 보인다, 위로 올라가자 3~ 4평 규모의 작은 다락방. 혼자 있기 좋은 공간이다. 센 터측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도서관 등 이용객들의 아이 디어를 받아 다락방을 재밌는 공간으로 꾸릴 생각이다.

공간 가운데는 희망나무 자리다. 센터를 찾은 이들이 녹색 종이에 다양한 사연들을 적어 붙여 놓으니 꼭 푸 른 나무처럼 보인다. 찬찬히 읽다 보면 입가에 절로 미 소가 지어진다. 아직 이용자가 많지는 않지만 수유실도 갖춰두고 있다.

이 곳을 찾는 이들이 가장 재미있어 하는 건 사진을 찍고 자신의 메일로 사진을 보낼 수 있는 포토존으로 아이들에게 인기가 많다. 방문객들끼리 사진을 찍기도 하고 플레이되는 영상 속 시장 상인들과 사진을 찍어 메일로 보낼 수 있다. 또 터치 한번으로 다양한 시장 정 보를 얻는다.

이곳에서는 대인시장 상인들의 회의가 진행되고 트 로트 교실도 열리며 일반 이용자들도 작은 소모임 공간 으로 활용할 수 있다. 시장 상인들을 배려해 이곳에서 는 따로 음료수나 먹을거리를 팔지 않는다. 대신 시장 에서 구입한 음료수 등은 가지고 와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. 또 수첩 등 자체 제작한 기념품과 광주국제교 류센터가 제작한 광주 관련 상품들도 구입 가능하다.

'대인 스토리'에 들르면 대인예술시장 구경이 훨씬 재미있어 진다. 시장 구석 구석에 자리한 재미있는 벽 화와 예술가들의 작업 공간, 맛있고 싼 먹을거리(취재 후 국수와 삶은 계란 3개를 단돈 2000원에 먹었다)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. 대인시장 구경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야시장을 찾아도 좋지만 그 때를 피 해 좀 더 느긋하게 둘러보는 것도 좋다.

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~오후 6시까지 문 을 열며 야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행사가 끝나는 시간까 지 오픈한다. 사전에 센터로 대인시장 투어를 신청하면 직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. 센터측은 조만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포함한 투어 프로그램을 정식 으로 운영할 예정이다.

이날 안내를 맡은 김한열씨는 "특히 주말이며 광주와 타지 사람들이 절반 정도씩 온다"며 "대 인시장 벽화 등 다양 한 정보를 얻어간다" 고 말했다. 문의 070-8234-8929.

/글·사진=김미은기자 mekim@kwangju.co.kr



'공기와 꿈'

잠시 멈춰 하늘을 보자

해와문화예술공간, 8일~9월 21일 강운展

앞만 보고 달리는 현대인들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볼 겨를조차 없다. 자연의 숨결 속에서 바쁜 삶을 한 박자 쉬어갈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 다.

해와문화예술공간은 8일부터 9월21 일까지 자연을 화폭에 옮기고 있는 강 운씨를 초대해 '하늘방'을 주제로 전시

높고 광대한 푸른 하늘, 풍성한 구 름, 상쾌한 바람, 그 바람에 움직이는 구름이 그의 화폭에 펼쳐진다.

마치 바람이 시를 쓰면서 만들어내 는 듯한 생동하는 하늘의 기운이 그대 로 전해진다.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의 순환하는 생명에너지가 작품에서 나 오는 것만 같다.

작품과 함께 바람 등 자연의 소리가 함께할 예정이다.

"스마트폰, 컴퓨터 등 온갖 인공적 인 것들로 가득찬 세상에서 지친 몸과 정신을 마음 편히 내려놓길 바란다"라 는 것이 작가의 말이다.

강씨는 서울 포스코 미술관에서 개 인전을 여는 등 독일과 일본 등에서 열 린 다수의 전시회에 참여했다. 둘째, 넷째 주 일요일은 휴관이다. 문의 062-233-9011. /김경인기자kki@

교황 방한 앞두고 관련 도서 인기

내달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을 앞 두고 교황 관련 도서 출판이 줄을 잇고

1일 인터넷서점 알라딘에 따르면 교 황 방한을 앞두고 현재까지 국내에서 출간돼 판매되고 있거나 출간 예정인 프란치스코 교황 관련 도서는 총 41종 가량이며, 특히 6월 이후 출간된 도서 만 27종에 이르는 등 방한을 앞둔 출판 계의 교황 마케팅이 거세다.

출간 건수만큼 교황 관련 도서의 판 매도 상승세라는 것이 알라딘 측 설명 이다. 알라딘은 구매자별로 보면 여성 이 58%, 남성이 42%로 여성 구매가 강세이며, 특히 40대 구매자가 가장 많 았다고 밝혔다.

관련 도서 중 최다 판매는 지난 4월 출간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공식 문 헌인 '복음의 기쁨'(한국천주교중앙협 의회)으로, 이 책은 성직자와 수도자, 평신도 등에게 보내는 교황의 메시지

www.kjhr.com





가 담겨 있다.

다음은 알라딘이 밝힌 교황 관련 도 서 판매량 기준 5위내 순위다.

1.복음의 기쁨(프란치스쿄 교황/한 국천주교중앙협의회) 2.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됩니다(프란치스코 교 황/가톨릭 출판사) 3.무신론자에게 보 내는 교황의 편지(프란치스코 교황, 에 우제니오 스칼파리/바다출판사) 4.교 황님의 트위터(프란치스코 교황, 이해 인/분도출판사) 5.파파 프란치스코 100(김종보/불휘미디어)

/연합뉴스





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.

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.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.



